

[사회]

섬 지역 관급공사 '복마전'

도서 지역 관급공사를 둘러싼 '복마전'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안군의 방조제 공사와 관급자재 납품과정에서 불법 하도급·납품 비리·예산횡령·뇌물수수 등 각종 비리와 불법행위로 공무원 등 30여 명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은 감독권이 미치지 않는 도서 지역 및 바다 관련 방조제·방파제 등 각종 관급공사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9일 신안군 자

연면 우이도 방조제 개·보수 공사(총 사업비 8억6천만원)의 예산을 횡령하고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신안군청 공무원 최모(60·5급)·김모(50·7급) 등 공무원 2명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건설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공사업체 현장조사 최모(46)씨를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자재납품 업자와 짜고 조합 예산 3천200여만원을 횡령한 광주 모 협동조합 부장 한모(48)씨

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안군 공무원 최씨와 김씨는 2006년부터 3년 동안 방조제 공사를 하면서 5개 자재납품 업자와 짜고 물품 대금을 부풀려 계약한 다음 부풀린 대금을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예산 1억8천만원을 횡령하고 계약 체결 조건으로 240만원의 뇌물도 받은 혐의다.

또 방조제 개·보수 공사 관련 부실공사를 목인한 신안군청 6급 공무원 김모(49)씨와 물품계약 대가로 뇌물 받은 회계담당 강모(41)씨 등 공

무원 5명과 협동조합 직원 3명·건설업체 직원 5명·자재납품업자 14명 등 모두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불구속 입건된 신안군 공무원들은 불법 하도급과 부실공사를 목인하거나 물품 계약 대가로 뇌물을 받은 등 업자·조합 직원들과 서로 짜고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지난 1월에 방조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폐 콘크리트 등이 불법 매립됐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이던 중 불법하도급이 이뤄진 정황

을 포착, 업체와 공무원간 유착 가능성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여왔다. 해경 관계자는 "공무원과 건설업체 간 유착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공무원 계좌추적을 벌여 불법 매립은 물론 예산횡령, 뇌물수수 등 대부분의 혐의를 밝혀냈다"면서 "감독권이 미치지 않는 도서지역이란 점을 감안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앞으로 도서지역에 대한 각종 관급공사에 대한 수사를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 하도급·횡령·뇌물수수 등 비리 난무 목포해경, 신안군 공무원 등 30여명 적발

광주 대규모 비즈니스호텔 생긴다

'토요코인 코리아' 500객실 규모 400억 투자

부지 매입 마치고 8월 착공다. 이 호텔은 오는 8월께 착공해 2010년 준공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토요코인은 우리나라에는 지난 4월21일 문을 연 부산 중앙동의 1호점에 이어 두 번째이며, 부산에는 연말께 부산역 앞에 2호점, 2010년에는 서면에 3호점이 각각 오픈할 예정이다.

중저가 호텔인 토요코인은 KTX를 이용해 광주를 찾는 일본과 중국은 물론 한국인 비즈니스맨들을 겨냥하고 있다. 역사에서 바로 나오면 택시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방을 끈 채 바로 호텔에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어서 일본에서는 비즈니스맨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토요코인코리아측은 400여억원을 투자, 이 자리에 지하 4층, 지상 25층, 연면적 9천여평 규모로 500개의 객실을 갖춘 비즈니스호텔을 건립할 계획이

다. 이 호텔은 오는 8월께 착공해 2010년 준공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토요코인은 우리나라에는 지난 4월21일 문을 연 부산 중앙동의 1호점에 이어 두 번째이며, 부산에는 연말께 부산역 앞에 2호점, 2010년에는 서면에 3호점이 각각 오픈할 예정이다.

중저가 호텔인 토요코인은 KTX를 이용해 광주를 찾는 일본과 중국은 물론 한국인 비즈니스맨들을 겨냥하고 있다. 역사에서 바로 나오면 택시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방을 끈 채 바로 호텔에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어서 일본에서는 비즈니스맨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제63회 구강 보건의 날'을 맞아 9일 오전 5·18 기념문화관에서 열린 구강보건상 시상식에서 '건치학생'으로 선발된 아이들이 하얀 치아를 드러 내어 보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고교생 학업성취도 격차 갈수록 커져

특목고 > 일반고... 사립고 > 국·공립고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수준이 일반고보다는 특수목적고, 국·공립고보다는 사립고, 읍·면지역보다는 대도시·중소도시, 남녀공학보다는 남학교·여학교가 더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조지민 연구팀이 내놓은 '2003~2006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교 1학년생의 학업 성취 수준을 학교 유형별로 비교한 결과 교과 평균점수는 특목고, 일반고, 전문계고순으로 높았다.

특히 2004년까지만 해도 영어를 제외한 국어, 사회, 수학, 과학 등 4개 교과에서 일반고의 평균점수가 특목고

보다 높았지만 2006년에는 특목고 평균이 일반고보다 2~10점 가량 높아지는 등 갈수록 특목고와 일반고의 성취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학생 비율도 특목고의 경우 ▲국어 2004년 27.3%→2006년 47.4% ▲수학 24.4%→45% ▲영어 30%→56.3%로 늘어난 반면 일반고는 교과과 영어에서 각각 0.2%, 0.4% 씩 하락했다.

학교 설립 유형별로는 2003~2006년 4개년에 걸쳐 모든 교과에서 사립학교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국·공립학교 학생들보다 높았다.

치아 건강 중요성 알린 '구강 보건의 날'

광주시치과의사회, 유공자·건치인 시상 등 행사 다채

광주시치과의사회(회장 배 응)는 9일 '제63회 구강 보건의 날'을 맞아 구강보건상 시상식을 갖고 치과의사회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와 건치인 등에게 상장을 전달했다.

광주시치과의사회 주최로 이날 오전 5·18 기념문화관에서 열린 구강보건상 시상식에는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 전남대·조선대 치의학과 관계자와 시민 등 500여명이 참가해 수상자들에게 박수를 보냈다.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광주시치과의사회 소속 노양근, 정성국, 조현수, 강승우, 류경호 원장이 치과의사회와 구강 보건 예방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광주광역시상장을 수상했다.

또 건강한 치아를 가진 시민들을 뽑아 시상하는 '건치인 시상식'에서는 관내 건치학생 10명과, 건치모자 10명, 건치노인 5명을 선발해 광주시치과의사회회장 표창장과 부상을 전달했다. <인터뷰 20면>



지난달 17일에 치러진 '제63회 구강 보건주간 기념 제6회 백일장' 입상자에 대한 시상도 이어졌다.

백일장 시상식에서는 글짓기 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한 정새롬(대성여중 3년)양과 그림 부문 대상 수상자인 최은비(울곡초 3년)양을 비롯해 유·초·중학교 학생 24명이 광주시치과의사회회장과 함께 부상을 수여받았다.

그림, 표어, 포스터 등 그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구강 보건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구강 보건 습관을 심어주기 위해 시치과의사회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행사다.

시상식이 끝난 뒤에는 마술과 초청가수의 공연 등이 펼쳐졌으며, 행사 참가자 전원에게 칫솔, 치실, 치간치솔, 올바른 잇솔질 홍보물 등의 구강용품이 무료로 배부됐다.

배 응 광주시치과의사회 회장은 "구강 보건의 날" 행사를 통해 치아 건강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시치과의사회는 초·중학생 구강검진, 저소득층 및 장애인 무료 구강진료사업 등의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쳐 시민들에게 다가설 것"이라고 말했다.

구름 아래 타오른 햇불 6월 10일
 (음 5월 7일) 
 차차 흐려지겠으며, 남해안 지역은 오후부터 비가 오겠다. 

광주	차차 흐려짐	19~27℃
목포	차차 흐려짐	19~24℃
여수	흐리고 오후 늦게 비	19~23℃
완도	흐리고 오후 늦게 비	18~23℃
구례	차차 흐려짐	17~27℃
해남	흐리고 오후 늦게 비	18~24℃
홍성	흐리고 오후 늦게 비	17~24℃
흥천	차차 흐려짐	17~25℃
영광	차차 흐려짐	18~25℃
진안	차차 흐려짐	18~28℃
남원	차차 흐려짐	17~28℃
축산도	흐리고 오후 늦게 비	15~20℃

서해남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2.0m
 서해북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2.0m
 남해남부 앞바다=북동~남서풍 파고 1.0~2.5m
 목포 밀물 < 07:14 썰물 < 12:36
 목포 밀물 > 19:33 썰물 > 01:11
 여수 밀물 < 01:49 썰물 < 08:11
 여수 밀물 > 14:27 썰물 > 20:24

▲해돋이 05:17 ▲해질녘 19:46 ▲달돋음 12:01 ▲달질림 00:13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주간날씨>

날짜	11(수)	12(목)	13(금)	14(토)	15(일)	16(월)
날씨						
최저/최고	18/25	16/28	17/28	18/26	18/26	18/27

'정율성 탄생지' 이번엔 이력서 논란

중친회 "원문 조작 가짜"... 남구청 "친필 확실하다"

정율성 선생의 생가 위치를 놓고 양림동과 불로동으로 나눠 논란을 벌였던 광주시 남구청과 하동정씨 종친회 등이 이번에는 '가짜이력서' 논란에 휩싸였다.

'정 선생 생가는 동구 불로동 163번지 하딩크호텔'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하동정씨 종친회는 9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남구청이 제시한 정 선생의 친필이력서는 가짜이며 원문을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동정씨 종친회는 지난달 2일 광주시 남구청을 상대로 정율성 선생 기념사업 추진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하딩크 호텔 회장이자 종친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정찬구(55)씨는 "이력서라고 하는 것은 정 선생의 부인 정설숙의 회고록에 나온 내용을 제3

자가 적은 것으로 친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구청은 정 선생의 자필 이력서와 부인 정설숙 여사의 회고록 등을 들어 양림동을 생가로 내세우고 있다. 자필 이력서에는 "나는 광주시 양림동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다"고 적혀 있으며 부인의 회고록에도 "정율성은 1914년 전라남도 광주 양림동에서 출생했다"고 쓰여 있다.

남구청은 이날 종친회 측의 기자회견에 맞서 반박 기자회견을 갖고 "정 선생의 친필 이력서는 말 그대로 친필로 쓴 이력서다. 이는 정 선생과 그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키고는 등 존재 자체를 근본부터 부인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LA市, 5·18재단에 감사패

5·18 기념재단은 지난 1일 미국 LA에서 열린 5·18 민중항쟁 28주년 및 민족학교 설립 25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LA 상원의원의 축하메시지와 함께 LA 시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고 9일 밝혔다.

기념재단은 지난달 30일부터 1일 까지 3일 동안 미 LA에서 미주 한인

봉사단체협의회, 재미한국청년연합 공동주최로 '움직이는 사람들,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아젠다'라는 주제의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안토니오 빌라이고사 LA시장은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 역사에 큰 역할을 한 5·18 광주민중항쟁 기념행사가 LA에서 개최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Movie Gift

영화권명품 5천원

영화권명품 5천원 (5매)은 영화 5편을 관람할 수 있는 권리로, 영화 1편당 1천원씩입니다. (영화 1편당 1천원씩)

영화권명품 5천원 (5매)은 영화 5편을 관람할 수 있는 권리로, 영화 1편당 1천원씩입니다. (영화 1편당 1천원씩)

부동산

부동산 매매, 임대, 전세, 분양 등 부동산 관련 정보와 서비스.

자동차

자동차 매매, 렌탈, 보험, 정비 등 자동차 관련 정보와 서비스.

여행/항공

여행, 항공, 호텔, 리조트 등 여행 관련 정보와 서비스.